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5호> 2019년 4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신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이타에서는 벚꽃 만개일이 작년보다 일주일 늦어지면서 4월 상순까지 벚꽃 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의 인사이동은 4월 말에 실시되기 때문에 다음 호에서 국제정책과의 신 체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럭비 월드컵 2019 오이타 개최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준비 모습을 포함해 해외 각 지역과의 교류, 동아시아 ASEAN 해외 프로모션 등 이번 연도에도 다채로운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이타현 소식>

현 국제교류원,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국제 이해 강좌 실시



지난 2월, 현 국제교류원 (한국, 중국, 영국, 호주)들이 현내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제 이해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오이타시 노다야마 유치원의 어린이 91명이 4개의 반으로 나뉘고 국제교류원들이 각각의 교실로 들어가 모국어로 인사말을 알려주고 가위바위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한국)’, 손수건 돌리기(영국) 등 게임을 알려주며 즐겁게 교류를 했습니다.

다케타 미나미 고등학교는 작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원이 한 명씩 모국의 문화와 음식 등에 대해 소개를 하고나서 그룹으로 나뉘어 게임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의 문화를 접해보는 것은 이문화 이해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이해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스키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이키시에 이어 이번 호는 우스키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곧 일본에서 개최되는 럭비 월드컵과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에 맞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안내소를 우스키역에 설치했습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는 관광 안내소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스키의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스키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국보 우스키 석불’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연동시킨 ‘다언어 음성 가이드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간체자, 번체자)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와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JR우스키역에 일본어로 좋아한다는 뜻의 '스키(好き)'를 활용한 귀여운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우스키의 스키를 하트 마크로 표기해둔 간판으로 여러분도 발견하시면 꼭 기념 사진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5호> 2019년 4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오이타 국제교류플라자



오이타 국제교류플라자는 국제 이해 및 교류,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오이타현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국제 교류에 관심 있는 오이타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료 상담은 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행정사가 담당하고 있어 재류 자격 및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중국어와 타갈로그어의 생활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민대상으로 열고 있는 국제이해강좌는 작년의 경우, 럭비 월드컵 개최에 앞서 오이타 대회 참가국을 소개하는 강좌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교류플라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코바야시 이쿠요라고 합니다. 주 담당 업무는 외국어 및 일본어 자원봉사자 매칭과 플라자 공간 활용입니다. 현재 플라자에는 12개 언어, 1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통역 의뢰가 들어오면 날짜와 내용 등을 고려해 자원봉사자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외국 국적의 학생 및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 사이에서 통역사를 알선하거나 외국어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소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청 국제교류원들과 함께하는 'Free Talk Class'가 진행되는 장소인 교류 스페이스는 오이타의 다양한 정보가 한가득 담겨있습니다. 교류 스페이스의 한 벽면을 꽉 채우고있는 일본어·외국어 도서는 플라자가 소장 중인 책들로, 이 책들과 기부받은 외국어 도서를 바탕으로 매년 한 번씩 도서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내 시설 및 관광지, 각종 이벤트 정보, 국제 협력(JICA) 관련 자료, 해외 유학 정보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일본어·외국어 교실, 아르바이트 모집을 비롯한 국제 교류를 원하는 이용자의 정보도 게시판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플라자에서 연 4회에 걸쳐 발행하고 있는 영어 정보지 'THE TOMBO'와 중국어 정보지 '大分信息(오이타신소쿠)'도 교류 스페이스에서 읽어보실 수 있고 학교 및 관공서 등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Free Talk Class'는 시작한지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처음 와주시는 분도 꾸준히 계시고 매번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고 계시어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Free Talk Class'는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국제 교류의 모든 부분을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주시고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플라자
코바야시 이쿠요 (小林幾世)

